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영국, Solvency II 도입시 보험사 지급준비금 상승 예상

- Solvency II가 적용될 경우 영국 손해보험산업의 지급준비금은 현재보다 150억 유로(130억 파운드)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.
 - 영국금융감독청(FSA: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)은 Solvency II를 2012년에 도입하기로 하면서 최근 생·손보사에 대한 파급영향을 분석하였고, 금년 여름에는 예비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함.
 - 이전까지는 Solvency II 도입으로 생보사의 지급준비금은 크게 증가하나 손보사의 지급준비금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음.
 - 영국의 생명보험산업은 300억~700억 파운드의 지급준비금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짐.
 - 그러나 최근 FSA의 분석에 따르면 손해보험산업 역시 지급준비금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.
 - 독립계리법인인 EMB는 영국 손보사들이 Solvency II 도입을 염두에 두고 지난 6개월 동안 대비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지급준비금이 평균 62% 증가하였다고 발표함.
- 한편, Solvency II 도입에 따른 지급준비금의 증가는 보험회사의 크기와는 관계 없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됨.
 - RSA, Aviva, Lloyd's 등 영국 대형 손보사들은 Solvency II 도입에 따른 지급준비금 증가의 대안으로서 자체적인 내부모형 구축을 서둘러 온 것으로 알려짐.
 - FSA는 최근 보험사가 내부모형의 운용을 통해 리스크와 자본을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면 Solvency II의 표준 모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발표함.
 - 그러나 EMB는 FSA가 승인하는 내부모형은 표준모형을 포함하는 확대된 범위를 요구하기 있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은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.
 - 최근 FSA가 집계한 내부모형 사용허가 요청건수가 저조한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영국내 700여개의 손보사 중 120여개인 17%만이 내부모형 사용을 신청함.

(Financial Times, 2/1)